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옥복연/성상담, 성교육전문가

저는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유머도 있어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학생들의 관심의 눈길을 무시하고 자랐는데, 운명의 여신은 저에게 그녀를 보내주었습니다. 채팅을 하면서 우연히 만난 그녀는 허필 우리 집과 가까이 살았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쾌활해서 정말 마음에 들었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랑의 징표로 저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싫다고 하면 내가 용기없는 남자가 될 것 같고, 같이 지내자니 무언가 마음에 걸리고...
 사랑하는 사이라면 성관계를 가져도 되는 것일까요?



오답

골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는 남학생이라면, 정말 여학생에게 인기가 많겠군요. 사춘기 시절에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열렬한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성을 사귀는 것은 설레임과 즐거움이 함께 하는 멋진 경험인데, 이때 서로의 좋아하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사이라면 성관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요.

지금 사귀고 있는 여학생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성관계를 하기에는 망설여지고,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성관계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성관계란 수억 마리의 정자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질 수 있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설마 나에게는...”하고 외면하지만, 신체가 성숙한 남녀의 성관계는 언제든지 임신이 될 수 있지요.

또한 성관계는 상대방을 진솔하게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에게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믿음을 주는 중요한 행위이지요.

그리고 성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며, 서로의 마음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관계란 진솔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 새로운 생명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준비된 관계라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를 아끼고 지켜주며 이해주는 것인데,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 것 일까요?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는 당당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 여학생은 더욱 O.O님을 믿음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은 이루어지기도 어렵지만, 더욱 아름답게 키워 나가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새천년에 성적인 골레에 자신을 가두지 마시고, 용의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듯 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대한의 날아가 되시기 바랍니다.